

사진 한 장으로 반려식물 상태 진단한다

GIST 프로그램 '무한도전 프로젝트' 학생팀 루티브 SK인텔릭스와 PoC 협력...AI 홈가드닝 앱 실증 착수

사진 한 장만으로 반려식물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을지.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재학생 창업팀 '루티브(Rootive·대표 최재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2년)'가 SK인텔릭스와 함께 AI 기반 홈가드닝 애플리케이션의 실증 테스트(PoC)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루티브 팀은 지난 3월20일 SK인텔릭스와 개념검증(PoC) 협약을 체결하고, 약 6개월간 기술 구현과 사업화 가능성 검증에 나선다. 개발된 서비스는 향후 SK인텔릭스의 웨스틴 로보틱스 '나무엑스(NAMUHX)'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된다. 루티브는 GIST 비교과 프로그램 '무한

도전 프로젝트'에서 출발한 학생팀으로, 'Root(뿌리)'와 'Innovative(혁신)'를 결합한 이름이다.

이들이 개발 중인 '마이 리틀 가든(My Little Garden)'은 사용자가 촬영한 식물 사진을 기반으로 AI가 생육 상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관리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식물 종류별 재배 정보 제공과 사용자 상호작용 기능도 포함돼 있다.

해당 서비스는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SK인텔릭스 주관 '제1회 나무엑스 해커톤'에서 우수상을, '2025 DMC 이노베이션 캠프 창업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 루티브 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 예비창업

패키지'에 참여해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 감증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실증에서는 AI 카메라 기반 이미지 데이터 수집, 구글 AI 식물 인식 기술 연계, 자체 개발 모델을 활용한 생육 상태 진단, 서버(API)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기술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GIST 관계자는 "학생 아이디어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제 서비스 검증 단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루티브 팀 최재원 대표는 "GIST의 '무한도전 프로젝트'와 창업진흥센터의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소재용 교수님을 비롯한 지도교수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협약 기간 동안 기술 완성도를 더욱 높여 실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jinuis@gwangnam.co.kr



광주과학기술원은 재학생 창업팀 '루티브(Rootive·대표 최재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2년)'가 SK인텔릭스와 함께 AI 기반 홈가드닝 애플리케이션의 실증 테스트(PoC)에 착수했다.

“도덕적 사명감 준수...사회공헌 앞장 서야”

광남일보,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 “신문윤리 준수...언론인이 지켜야 할 덕목”

광남일보가 13일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열고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소양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동 광남일보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린 신문윤리강령 교육에는 이승배 사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취재·편집 기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수업을 진행했다.

교육은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부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 사장은 편집윤리강령을 통해 '기사의 공정성 확보', '선정적, 비도덕적인 제목 배제' 등을 강조했다.

특히 기사 제목 관련 취재기자와의 의견 공유, 취재기자 의견 반영 등 편집 자율권 보장에 대한 주문도 이어갔다.

이어진 광고윤리강령에서는 소비자의 판단 착오를 유발하는 과장되고 기만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소비자로부터 투기나 사행심을 부추기지 않는 등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느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사금융, 투기 조장성 광고 배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13일 오후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제, 광고의 부당행위 요청 배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승배 사장은 “엄격한 신문윤리강령 준수는 언론인이 지켜야 할 덕목이다”면서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

고, 언론인으로서 도덕적 사명감을 준수해 사회공헌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안도결 의원,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국회 내 품격있는 언어 사용...건전 정치문화 확산 기여

더불어민주당 안도결 국회의원(광주 동남·사진)이 13일 '제11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 으뜸언어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회일처를위한정치포럼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국회 내 품격 있는 언어 사용과 건전한 정치문화 확산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안 의원은 그간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정책 질의 및 대외 발언 전반에서 사실 기반의 정확한 표현, 절제된 메시지, 정책 중심의 논리적 언어 사용을 일관되게 유지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경제·재정 분야 주요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적극적 표현이나 정쟁적 발언을 지양하고, 수치와 근거에 기반한 설명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경제통 정치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 있는 언어 태도를 동시에 보여왔다는 평가다.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쟁 추경 필요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위기 상황을 과장하거나 불안을 조장하기보다, 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온 점 역시 수상 배경으로 꼽혔다.

안도결 의원은 “정치언어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 국민과의 약속이자 책임”이라며 “말 한마디가 시장과 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정치언어로 국민께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여수시 SNS 서포터즈가 GS칼텍스와 최근 GS칼텍스 예술마루, 예술의 섬 정도에서 4월 서포터즈 데이 공동취재 활동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여수시청

여수시, 복합문화예술의 섬 장도 매력 홍보

GS칼텍스와 공동취재 전개

여수시 SNS 서포터즈가 GS칼텍스와 최근 GS칼텍스 예술마루, 예술의 섬 정도에서 4월 서포터즈 데이 공동취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서포터즈 데이는 개관 14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GS칼텍스 예술마루와 SNS 등에서 주목받고 있는 '예술의 섬 정도'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망마산 자락에 위치한 예술마루는 GS칼텍스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2012년 5월에 개관한 남해안권 대표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대극장과 소극장, 전시실, 리허설룸, 분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서포터즈는 일반 관객에게 공개되지 않는 무대 뒤 공간을 둘러보며 공연 제작과

정과 공연장의 백스테이지를 체험하고 취재했다. 2019년 5월 조성된 '예술의 섬 정도'는 가막만의 자연경관과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서포터즈는 정도의 명물인 보행교량 '진심다리'를 건너 창작스튜디오와 다목적 전시관, 아트카페 등을 관람하고 정원길과 예술길, 해안술길 등 산책로를 따라 자연과 조화를 이룬 예술 조형물을 감상했다.

김중은 GS칼텍스 상무는 “GS칼텍스 예술마루와 정도는 누적 방문객 369만 명이 다녀간 명실상부 남해안을 대표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기 기자 swg3318@gwangnam.co.kr



봄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모습. 사진제공=진도군청

진도군, 봄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20일까지 진행...제철 수산물 등 집중

진도군은 봄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도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산시장,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품목은 봄철에 수요가 높은 주꾸미, 도다리, 바지락 등 제철 수산물과 낚치, 꽃게, 참돔 등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20개 품목이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미표시), 수입산

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거짓 표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위장표시)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봄철 수산시장과 음식점 등에서 군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며 “원산지 관련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복지관 강당에서 지역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무안군청

무안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인권교육' 호응

주민 100여명 대상 눈높이 인권존중 문화 역량 강화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병순)은 최근 복지관 강당에서 지역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내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주민들이 존중·배려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날 강의는 인권의 기본이념 이해, 차별사례 살펴보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권보호방법, 인권 감수성 키우기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민들은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인권 개념을 눈높이에 맞게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특히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정병순 관장은 “이번 교육이 지역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다채로운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